

남구, 종합민원실 '민원 안내 전담도우미' 운영

장애인 등 동행 안내·빨간펜 안내지도 제공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안내 전담도우미'를 운영한다.

더불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동행 안내를 비롯해 담당 부서 및 업무 담당자와 해당 부서의 층별 위치 등을 알려주는 맨투맨 빨간펜 민원 안내지도도 제공한다.

남구에 따르면 민원 안내 전담도

우미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창구 안내를 비롯해 서류 발급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종합민원실에는 노랑 조끼를 입은 도우미 3명이 배치된 상태이며, 이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중이다.

민원 안내 전담 도우미를 배치한 이유는 민원실 이용이 낮은 주민들

이 종합민원실 내 10개에 달하는 민원 창구를 접하고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은 하루에만 수백명에 달해 남구는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별로 민원 창구를 세분화 한 상황이다.

노랑 조끼를 착용한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막힘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구두 상으로 간편 민원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민원 신청서에 민원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행이 불편하거나 청각과 시력이 좋지 않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민원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민원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부서와 담당자, 민원 내용 등을 빨간색으로 작성해 제공하는 맨투맨 민원 안내지도와 동행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북구, 추석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 대응·주민생활 관련 2대 분야 10개 과제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추석을 맞이하는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북구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내달 12일까지 코로나19 대응과 주민생활 관련 2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특별 방역주간을 정해 생활방역 실천을 안내하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콜센터를 정상 운영하며, 비상진료기관 6곳을 지정해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부터 재택치료자 관리까지 주민 안전에 빈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 상거래 행위 제한, 유통업체별 가격 구 홈페이지 공개, 원산지 표시 점검 등 명절성수품 구

입편의도 제공한다.

취약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호우·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계를 구축해 만약을 대비한다.

그밖에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 생활쓰레기 수거대책 마련(연휴 4일 중 2일 수거), 15개소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당일에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와 영락공락공원 일원에서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성묘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어 추석 기간 주민 안전을 최우선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동구, 빛의 분수대 큰 관심

"빛과 물과 소리가 만들어내는 예술",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빛의 분수대"

5·18민주광장 '빛의 분수대'가 개막 두 달여 만에 SNS 입소문을 타면서 광주 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 관광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광주 동구는 지난 6월 10일 빛의 분수대 개막 이후 일 평균 500여명, 연계행사 개최 시 1천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등 누적 관람객 1만여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움직이는 대형 키네틱 조형물의 군무가 인상적인 대표 작품 '빛의 분수'와 광주를 상징하는 재미있는 캐릭터들의 희망찬 발걸음을 표현한 '밝은 미래'가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빛의 분수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 15분 이전부터 대기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동구는 다채로운 사전 행사를 편성해 무더위 속에서도 빛의 분수대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대표 공연인 '빛의 분수'를 배경으로 관람객들이 사진 촬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순차적으로 해외 작가들의 기획 콘텐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역 방송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지난 22일 KBC광주방송 임채영 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서구청 제공

서구, '소상공인 활성화' 위해 KBC와 맞손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역 방송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지난 22일 KBC광주방송 임채영 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서구청과 KBC광주방송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구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진출을 통한

매출 증대 ▶온라인 시장 진출 가능한 제품발굴 및 판로 지원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제작·홍보뿐만 아니라 참여업체의 사후관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국 3층에 전문 스튜디오를 갖춘 KBC광주방송 측은 앞으로 입점 희망업체 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 상품성 컨설팅과 상세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스

터 개설 등을 통해 '우리동네 좋드만마켓'에 입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서구는 이번 협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진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8월의 크리스마스' 공연 개최

"8월에 크리스마스를 만나세요."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7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상주단체 '더 싱어즈'의 '8월의 크리스마스'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여성 솔리스트 앙상블 더 싱어즈는 광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 패밀리 예술극장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은 온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객석이 무대 위로 배치되며, 공연 전에 무대 배경을 거대한 철망과 종이를 이용해 함께 꾸미고 조명을 투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소원 카드도 직접 꾸미며 공연 전 크리스마스 캐럴을 함께 부르며 막바지 무대를 무대 위에 날리는 눈과 함께

날려 보낸다.

더 싱어즈는 크리스마스 성가곡과 캐럴, 가곡, 오페레타 아리아, 가요, 영화음악과 뮤지컬 넘버 등,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실력과 신인 남자 성악가들이 객원으로 참여해 다채로운 색깔을 노래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나, 무대 위 참여형 관객석 80석은 NO SHOW(노쇼) 관객 방지를 위해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예약금(1인 3천원)을 미리 지불하고 예매할 수 있다. 이 예약금은 공연종료 후, 공연 관람 관객에 한해 전액 환불 처리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989)에 문의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작품상 수상작